



1996년 시멘트 결산서

김 영 민 <한국양회협회 기획부 관리과 대리>

〓 둔화가 예상되던 올해의 시멘트 수요는 SOC 확충사업 등의 토목부문에
 〓 대한 투자가 활발하여 전년보다 4.7%가 증가하였다.
 〓 그러나 생산여건 악화로 인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관세할당 적용 등
 〓 적극적인 수입으로 국내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1. 96년 국내 경제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96년 경제전망에 의하면 GDP 성장율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한 수출부진이 설비투자의 조정국면과 겹치면서 당초 정부의 예상치인 7~7.5% 보다 낮아진 6.9% 증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투자중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중화학제품의 수출단가가 폭락함에 따라 전년도의 15.9%에 비해 대폭 둔화된 5.5%만이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도 토목건설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물건설의 부진으로 전반적인 부진을 면치 못해 6.0%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

수출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반면,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년의 48억달러에서 140억달러 내외로 확대되어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적자폭은 95년의 89.5억달러 보다 배 이상이 늘어난 2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중 높은 기름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하반기 들어 농축수산물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점차 안정을 되찾았으나 연간으로는 지난해 4.7%와 비슷한 4.5% 정도 상승이 예상된다.

2. 96년 국내 건설동향

건설경기는 경기침체로 95년말부터 지속된 건설업체 부도가 증가하자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96년에 계획되었던 공공공사 물량의 절반 가량을 1/4분기에 조기 발주하였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SOC 민자사업은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고 참여기업들이 적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택부문 또한 부동산가격의 안정으로 미분양아파트 적체가 계속되어 금년 10월 현재 11만2천호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에 자금회수가 어려운 건설사들의 투자가 저조하여 95년에 비해 크게 위축된 6.0%증가에 그쳤다.

건설선행지표인 96년 건축허가동향을 보면 연초에는 전년동월비가 증가하는 등 94, 95 2년여에 걸친 부진에서 탈피,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도 했다. 그러나 3월 이후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공업용과 상업용을 중심으로 작년보다도 감소하는 부진을 보여 연간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소세는 95년 건축허가면적이 삼봉

백화점 참사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호조를 보였음을 감안할때 전년동기의 호조에 대한 상대적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 4/4분기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월까지의 건축허가실적은 9천274만1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천449만4천㎡에 비해 1.9% 감소하였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전체 허가면적의 52.1%를 점유한 주거용이 미분양주택 적체등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되어 전년보다 1.2% 감소한 4천923만㎡로 나타났다. 비주거용중 상업용 건축허가면적은 거시경제가 올 1/4분기 이후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면서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어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한 2천401만9천㎡를 기록했다. 공업용은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한데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10.3%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1천156만3천㎡에 그쳤다.

문교사회용 및 기타 건축허가면적은 968만2천㎡로 유일하게 전년보다 15.9% 증가하였으나 건축허가면적중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불과하여 건축허가면적 증가에는 기여도가 크지 못하였다.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9월까지 건설공사수주액은 35조8,6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하였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확대에 힘입어 13조4,96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3%의 두드러진 성장율을 기록하였다. 건축은 94년말부터 시작된 미분양주택 적체현상이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진데 기인하여 22조1,1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8%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금년에는 공공공사 조기발주의 영향으로 상반기중의 수주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율이 현저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발주자별로 볼때 공공부문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확대와 조기발주 정책으로 중앙고속도로 건설,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 공항, 항만시설 건설공사가 구

준히 이어져 전년동기대비 48.1%의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 민간부문은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발주물량 등으로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거시경제 상황에 민감한 비주거용 건축이 경제상황의 악화로 부진을 거듭하여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에 그쳤다.

3. 시멘트 수급동향

시멘트는 건설활동의 주요자재로서 건설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이다. 금년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건축경기도 장기적으로 침체되었고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과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민간건설이 둔화되어 시멘트수요가 95년에 비해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공공공사의 조기발주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토목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시멘트수요는 수출 80만톤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4.7% 증가한 6,030만톤에 달하였다.

공급은 년초부터 환경훼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라가 백두대간문제로 석회석채광을 일시 중단하였었고, 고려는 장성공장의 주광산인 백아산의 석회석 채광허가가 불허되어 4개월여에 걸쳐 공장가동까지 중단하는등 시멘트생산 여건이 어느해보다도 악화됨으로써 국내생산은 5,719만톤에 그쳤다.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부족한 시멘트를 수입하였는데 수입물량 부족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5월 하순부터 시멘트를 관세할당품목으로 지정, 345만톤의 시멘트가 수입되면서 국내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건축성수기인 4월부터 SOC확충, 정부의 공공공사 조기발주 및 총선등으로 시멘트수요가 증가하자 역두



〈표-1〉 '96년시멘트 수급실적

(단위 : 천톤)

	공 급			수 요			재 고
	생 산	수 입	계	내 수	수 출	계	
1/4분기	10,807	502	11,309	10,477	303	10,780	1,391
2/4분기	15,683	774	16,457	16,831	168	16,999	852
상 반 기	16,490	1,276	27,766	27,308	471	27,779	
3/4분기	15,188	1,133	16,321	15,877	203	16,080	1,180
4/4분기	15,512	1,041	16,553	16,314	126	16,441	1,260
하 반 기	30,700	2,174	32,874	32,192	329	32,521	
합 계	57,190	3,450	60,640	59,500	800	60,300	

주) 12월은 추정치, 크링카 수출은 제외

및 하치장에 포장시멘트 재고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시멘트 출고의뢰서가 품귀현상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시멘트구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 가운데 이상 가격급등 움직임이 일게 되자 시멘트업계에서는 이를 시세차익을 노린 중간브로커의 투기성 매집등 가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한하여 5월 21일 이후 발행한 출고의뢰서는 발행일자 기준 15일 이내에 인도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현품을 인도하도록 포장시멘트 현품인도방법을 변경하여 실수요자만 출고의뢰서를 구입하게 되고, 중간 유통업자에 의한 매점매석이 근절되어 포장시멘트 수급상황이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가. 생산

크링카와 시멘트생산은 각각5,236만톤, 5,719만톤으로 전년보다 각각 0.9%, 3.7% 증가하였다. 크링카 생산을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1,177만톤, 2/4분기 1,337만톤, 3/4분기 1,362천톤, 4/4분기 1,360천톤

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생산비중은 48.0%, 52.0%로 나타났으며, 분기별 생산실적을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1/4분기에만 2.0% 감소하였을 뿐 2/4분기 1.0%, 3/4분기 5.5%, 4/4분기 0.2% 증가하였다.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1,081만톤, 2/4분기 1,568만톤, 3/4분기 1,519만톤, 4/4분기 1,551만톤으로 하반기의 생산비중이 53.7%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아 시멘트공급을 위한 가동을 제고로 인한 것이었다.

분기별 생산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크링카와 마찬가지로 1/4분기에만 0.7% 감소하였고 2/4분기 1.8%, 3/4분기 11.9%, 4/4분기 1.5% 증가하였다. 1/4분기가 크링카와 시멘트 모두 생산이 감소한 것은 이 기간이 동절기에 해당하여 전년도 가동에 따른 시설보수 및 금년도 성수기를 대비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계절이므로 통상적으로 다른 분기에 비해 생산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1/4분기 시멘트수요가 전년동기보다 감소하고 공급여력이 충분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보수가 예년보다 많았으며 더불어 한일 3호 키론의 개조공사와 고려 장성공장이 석회석 부족으로 가동을 정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3/4분기는 전년에 비해 생산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일 3호 키른이 5월에 준공되어 생산에 기여하였고 고려 장성공장도 석회석광산 채광허가로 공장가동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95년 2월 경영악화에 의한 부도로 법정관리상태에 있던 덕산이 법원경매를 통하여 대주건설에 인수되면서 상호를 대한시멘트공업(주)로 변경하고 7월부터 공장조업을 재개하여 생산에 기여하였다. 3/4분기의 시멘트수요가 전년대비 18.4%나 크게 증가하여 가동을 제고시키고 공급량을 늘린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시멘트생산을 업체별로 보면 전년대비 생산이 증가한 업체는 동양, 한일, 현대, 성신, 한라, 한국고로, 대한으로 각각 3.7%, 9.4%, 2.0%, 2.9%, 21.9%, 27.3%, 15.7%가 늘었다.

한라와, 한국고로의 신장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고로가 6월에 연간 4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시멘트밀을 증설하여 가동에 들어갔고, 한라는 생산시설의 증설은 없었으나 작년에 비해 크링카 수출이 50만톤이나 감소하여 이를 시멘트로 분쇄하였기 때문이다.

쌍용, 아세아, 고려가 각각 1.8%, 2.0%, 0.7% 감소하였는데 쌍용이 문경공장의 키른을 상반기까지만 가동한 후 하반기부터는 중단하였고, 아세아는 크링카 매입이 전년에 비해 5만톤이나 적어 이의 분쇄를 통한 시멘트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고려는 4개월에 걸친 조업중단에도 불구하고 슬라그시멘트생산을 증대하였기 때문에 감소율이 예상외로 적었다.

한편 슬라그시멘트는 주요 생산업체인 고려, 대한의 생산시설이 정상가동하지 못하였으나 한국고로의 증설에 의한 생산기여량과 시멘트수요 증가로 일반시멘트가 부족하자 슬라그시멘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슬라그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업체들이 가동율을 높여 전년대비 28.8%나 급신장된 465만톤의 슬라그시멘트를 생산하여 전체 시멘트생산량의 8.1%를 점유하였다.

나. 내수

시멘트수요는 건설경기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건설경기의 등락에 따라 시멘트수요도 그 움직임을 같이 한다.

금년에는 SOC 확충사업을 위주로의 토목부문이 건설경기를 주도하였음에도 주택건설이 활기를 띤 95년의 7.3%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시멘트구조물에 대한 고강도화 추세로 시멘트수출을 포함한 수요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6,030만톤이었고, 내수만 보면 5.3% 늘어난 5,950만톤에 달하였다.

시멘트 내수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는 생산과 마찬가지로 0.9% 감소하였고, 2/4분기 2.5%, 3/4분기 18.4%, 4/4분기 1.3% 증가하였다.

특히 10월의 내수출하실적은 일평균 19만5천톤에 해당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605만5천톤을 기록하는 것으로 월단위 내수출하로는 사상최고이며 처음으로 600만톤을 초과한 것이다. 이는 가을철 수요가 발생하는 9월에 추석연휴가 있어 건설공사가 잠시 중단되거나 10월로 연기된 것이 10월 수요와 맞물리면서 시멘트수요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이다.

인구증가율에 비해 시멘트소비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국민 1인당 시멘트소비량은 일본의 653kg의 2배에 달하는 1,316kg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만의 1,170kg보다도 146kg이 많은 것으로 세계평균이 241kg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의 실적이다.

(1) 계절적 출하실적

시멘트는 건설경기과 마찬가지로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나 최근 건설공법의 발달로 동절기에도 공사가 진행되어 점차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시멘트의 월별 소비추이를 보면 건설업 비수기인 1, 2, 12월의 동절기와 혹서와 우기인 7, 8월에는 수요가 평균실적을 밑도는 것이 통상적이다.

금년에는 지난 6월말에 발생한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상반기에 시멘트 부족으로 건설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하반기에도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여 착공시기를 앞당겨 시멘트수요가 가중된 7, 8월의 내수출하는 평균보다 5.9%, 4.3%나 높은 525만톤, 517만톤에 이르러 동절기에만 평균실적보다 적었다.

반기별 출하구성비는 상반기 45.9%, 하반기 54.1%에 해당하는 2,731만톤, 3,219만톤으로 하반기가 488만톤이 많은 내수출하를 기록하여 동절기인 1, 2월이 상반기에 편재된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출하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7.6%, 2/4분기 28.3%, 3/4분기 26.7%, 4/4분기 27.4%를 점유하여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다.

(2) 수요별 · 품종별 출하실적

내수출하를 수요부문별로 보면 민수 97.0%, 관수 3.0%로 각각 5,772만톤, 178만톤으로 95년의 민수 96.0%, 관수 4.0%와 비교하면 민수는 1.0% 포인트 늘어난 반면 관수는 1.0% 포인트 감소하였다.

10년전인 86년과 비교해 보면 민수는 11.5% 포인트가 늘었다. 민수는 매년 1.1% 이상씩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금년에도 이어져 물량면에서도 민수가 346만톤 늘어난 것에 비하여 관수는 47만톤이 감소하였다.

이는 점차 공공공사의 자체수급이 건설회사에서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도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품종별 출하실적을 보면 벌크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커지고 있어 수요패턴이 벌크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벌크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85.0%를 점유한

5,058만톤으로 전년의 82.0% 보다 3.0% 포인트 높아졌으며 물량으로도 426만톤으로 9.2%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95년도 벌크화율이 98.7%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벌크화로의 전환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다. 벌크화율 증가 추세는 벌크시멘트 이용면에서 레미콘사용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인데 96년의 레미콘 총생산량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억1,874만㎡를 생산하였고 이중 수도권은 4,442만㎡로 전년보다 3.9% 증가하여 총생산량의 37.4%를 점유하였다.

최근 벌크시멘트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레미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로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고강도화 추세로, 레미콘의 초기강도가 높아지고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슬럼프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교통체증으로 적시에 레미콘 타설이 어려워지자 대형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 생산시설을 구축, 품질 향상에 진력하고 있어 벌크시멘트의 소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지역별 내수출하를 보면 최대소비처인 수도권이 전체물량의 37.6%를 점유하였고, 부산, 경남지역이 16.6%를 차지하였다.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북, 제주지역이 각각 4.8%, 14.3%, 13.6%, 12.3%, 1.1%로 수도권과 경남북지역에서 66.5%를 소비하였다.

95년의 지역별 출하비중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전북, 경남북, 제주지역은 감소하였으나 서해안개발과 신항만건설로 건설수요가 늘어난 부산, 강원, 충남북, 전남지역은 증가하여 서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 재고

시멘트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월간 생산능력은 일정하나 수요는 계절적으로 변동폭이 크므로 수요의 규모에 따라 월말 재고상태가 변화된다.

금년도 재고상태를 보면 전년도말 이월재고가 164만톤에 불과했던데다 시멘트 생산도 5,719만톤에 그

쳤던 반면에 수요는 시멘트수출량 80만톤을 포함할때 6,030만톤에 달해 출하량이 공급량을 상회하여 금년 내내 재고가 부족하여 공급에 애로를 겪었다. 96년말 공장소 소비지의 크링카, 시멘트를 합친 총재고는 221만톤으로 전년보다 21.2% 증가하였다. 이중 전체재고의 93.3%를 점유한 공장재고는 크링카 80만톤, 시멘트 126만톤인 206만톤으로 전년말 164만톤보다 26.0% 증가하였다.

소비지재고는 역두 9만3천톤, 하치장 5만6천톤으로 전년대비 20.7% 감소하였다. 이는 전년도 이월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장재고는 12월의 일기가 전년도보다 추웠고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수요는 감소하였지만, 공급이 생산과 수입증가로 시멘트재고가 46.3%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지재고는 본격적인 동절기 1, 2월을 앞두고 있어 건설공사를 마감하기 위한 포장시멘트의 수요가 많아 역두 및 하치장에서 포장시멘트의 출하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하치장의 포장시멘트재고는 전년도의 53.3%에 그친 5만6천톤에 불과하였다. 공장재고의 70.3%를 점유한 본공장재고는 145만톤으로 전년의 109만톤보다 32.6% 증가하였고, 물량으로도 35만6천톤이 늘었다. 본공장재고는 전년도보다 12.7% 증가했지만 물량으로는 61만1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연중 재고부족 현상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별로는 성수기를 대비한 재고확보로 2월말 공장재고가 389만톤에 달해 최고를 기록하였다.

11월말의 공장재고는 2월보다 227만톤이 줄어든 162만톤에 그쳐 최저를 나타내 9개월에 걸쳐 월평균 25만2천톤씩 재고가 감소하였다.

라. 수출입

시멘트는 중량물인 제품의 특성상 물류비의 비중이 높아 내수를 위주한 산업으로 수출입은 단기적인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해 근접국가간에서 발생한다. 금년

에도 토목부문의 건설경기에 의해 시멘트수요가 증가하여 공급물량을 내수에 우선 충당하고 수출은 해외시장 관리를 위한 최소한에 국한시키고 수입을 늘려 국내수급 안정을 기하였다. 현재의 공급능력으로는 국내 시멘트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하였다.

크링카를 포함한 사별 수출실적은 동양 40만5천톤, 쌍용 126만6천톤, 한일 2만톤, 현대 6만8천톤, 한라 64만1천톤으로 나타나 수출사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

성신과 95년도에 처음으로 크링카수출이 있었던 흥성은 금년에는 수출이 없었다. 95년도 수출실적인 368만톤과 비교해 보면 128만천톤이 줄어든 240만톤으로 34.8%나 감소하였다. 크링카는 95년도보다 무려 1,113천톤이 적은 160만톤에 그쳐 전년대비 41.0%나 급감하였고, 시멘트는 16만6천톤이 줄어든 80만톤으로 전년대비 17.2% 감소한 실적에 그쳤다.

전체 수출물량중 교환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그쳐 95년의 18.3%와 비교하면 현격한 감소를 보였다.

교환수출은 내륙사가 잉여물량을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안사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수급에 크게 기여하는 출하형태이다. 최근에는 매년 출하실적의 10% 이상의 교환수출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연초부터 이월재고의 부족과 수요의 증가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예년에 비해 저조한 교환수출이 발생되었다.

올해는 현대가 한라를 통해 수출한 크링카 6만8천톤이 유일한 실적이었다. 시멘트수출은 포장상태보다는 선적과 하역이 기계장치에 의해 발생되고 대량수송이 용이한 벌크상태의 수출이 주종을 이룬다.

금년에도 한일이 남태평양군도에 수출한 2만톤의 포장시멘트를 제외하고는 전량이 벌크시멘트였다. 지역별로는 96년 총수출국은 13개국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에 편중되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수출구성 비중이 93 : 7로 비교적 근거리인 동남아



시아로의 수출이 높게 나타났다.

국별 수출실적 비중은 최근거리에 위치한 일본으로 22.1%로 최고를 기록하여 전년도 15.4%보다 6.7% 포인트 증가하였다.

수출실적을 품종별로 구분하면 한국고로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크링카 21천톤을 제외하면 모두 시멘트이다.

분기별 시멘트수입을 보면 1/4분기 50만2천톤, 2/4분기 77만4천톤, 3/4분기 113만3천톤, 4/4분기 104만1천톤으로 모두 345만톤에 달해 전년대비 65.7% 증가하였고, 물량으로도 136만8천톤이나 늘었다.

이는 수급안정용으로 수입한 것인데 동남아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시멘트소비가 크게 증가하자 공급부족분을 주수입원이 우리나라와 같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을 확대함에 따라 수입물량 확보 경쟁이 일게 되고 가격마저 인상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입업체의 적자보전 및 원활한 물량확보를 통한 국내 시멘트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시멘트에 대하여 관세할당 품목으로 고시하였다.

5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수입되는 시멘트 전량과 하반기 200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1%를 적용하였으며 협회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하여 11월 21일에 이르러 할당량이 전량 소진되었다. 수입시멘트를 원산지별로 보면 일본산이 68.4%인 236만톤이었고, 중국산은 109만톤이었다. 중국산의 경우 성신과 일반 상사에서 수입한 5만5천톤을 제외하고는 전부 쌍용과 한라가 일본의 중국내 합작사인 미쓰비시, 오노다가 생산한 시멘트 제품으로 사실상 품질면에서는 일본산으로 볼 수 있다.

마. 수송

96년의 수송실적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5,987만톤을 기록하여 수출물량이 100만톤 이상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건설경기에 수반된 시멘트 내수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수송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수송수단별 수송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철도와 해송은 각각 1.5%, 7.3% 감소한 반면, 육송은 13.2% 증가하였다.

수단별 수송실적 분담비를 보면 철도 30.4%, 선박 33.0%, 육송 36.6%로 나타나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타수송수단에 비해 적기확보가 용이한 트럭에 의한 육로수송이 상대적인 운반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회송율이 높아 가장 많은 수송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철도는 과거보다 수송비중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전년도의 31.2%보다 0.8% 감소하였다. 이는 철도 화물요금의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산업의 발달로 철도수송 물동량이 증대한 것에 비해 철도 수송력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해송은 타수송수단보다 대량화물의 수송에 적합하고 단위당 운반비가 적게 드는데다 업계에서 부족한 유통기지를 연안지역에 많이 증설하고 있어 향후 선박을 이용한 수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도 연안 유통기지를 동양이 인천에 3만톤, 목포에 2만톤, 한라가 인천에 4만톤의 싸이로를 증설하여 선박수송 여건은 좋아졌으나 내수증가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비중은 3.0% 감소한 실적이 그쳤다.

수송수단별 수송비율은 계절에 따라 수송패턴이 변화되는데 1/4분기에는 철도 32.2%, 해송 38.5%, 육송이 29.3%로 해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4분기가 비수기에 해당하는 계절로 성수기를 대비한 재고비축을 위해 유통기지로의 시멘트이송이 수송효율을 고려할때 육송보다 압도적우위를 갖는 해송과 철도에 의해 수송이 활발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멘트수요 성수기에 해당하는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모두 육송이 39.9%, 39.2%, 36.5%를 점유하였는데 이는 공급부족으로 재고비축보다는 건설현장으로 적기수송이 가능한 육송이 수송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A